

## 대학생의 전공선택과 진로결정 분석

- D대학 치기공과 재학생을 중심으로 -

이 화 식, 배 봉 진, 장 기 환  
대구보건대학교 치기공과

### Research on the major selection and the career decision of college students

(Centering on students studying Dental Technology in D-College)

Hwa-Sik Lee, Bong-jin Bae, Ki-Whan Chang  
Dept. of Dental Technology, Daegu Health College

**[Abstract]**

**Purpose:** The following research analyzes the causes of major selection and career decision of students studying dental technology. It is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management of career improvement program.

**Methods:** The survey has been processed to 490 college students studying Dental Technology in D-college. Questionnaire consists of major selection confidence sheet (14 items) and career decision confidence sheet (18 items) and was scored with 5-points per question.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the statistical program: SAS V8 for Windows. To test for significance on each item,  $p < 0.05$  has been decided as a standard.

**Results:** The analysis of result about the level of confidence on major selection has valid difference by genders, serving military service or not, experience of studying one more year to enter the college or not, making career decision and grade.

The analysis of result about career decision has valid difference by gender, serving military service, career decision, day and night course, age and native place.

**Conclusion:** We develop the career advice program and manage it effectively, the confidence on the major selection and pride about its faculty will be high to dental technology students.

● **Key words** : dental technology, major selection, career decision

교신저자	성명	이 화 식	전화	053-320-1322	E-mail	lihisi@dhc.ac.kr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산7번지 대구보건대학교 치기공과					
접수일	2011. 10. 25		수정일	2011. 12. 7		확정일	2011. 12. 28

## I. 서 론

개인의 전공선택과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개인의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고등학교 진학과 대학의 진학을 앞둔 시기이다. 특히 고등학교 진학보다는 대학의 진학이 진로결정시기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한겨레, 2010).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고등학교 때 진로선택이나 직업선택을 준비하여 자신이 진로를 선택하기 보다는 대학 입시를 위한 준비를 위한 공부에만 전념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원창, 2006).

대학을 입학할 때 본인의 진로를 고려하여 전공이나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의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사회의 구조적 및 제도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실제 고등학교 때부터 진로지도나 상담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대상이기도 하다(이재창, 1987; 고원경, 2001; 조순형, 2006).

대학생 상당수는 자신의 적성과 장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성적에 맞추어 대학을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하여 입학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대학생 활에서의 진로결정은 우리일생의 시간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의 직업세계로 나가는 마지막 단계로 진로선택의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이재도, 2009).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대학생들의 평균 재학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취업포털 인쿠르트에 의하면 2009년 2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재학기간을 조사한 결과 졸업까지 평균 6년(72.4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나 졸업예정자 10명 중 4명이 졸업을 유예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졸업유예 기간이 늘어난 것은 졸업생이 아닌 재학생 신분으로 취업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 가장 많았으며, 이밖에 영어공부와 자격증 취득 등 취업공부를

위해서,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가 많았다(한국경제 TV, 2010).

치기공과에 입학한 학생들 역시 학과의 선택이 개인의 적성이나 장래에 대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원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반응은 상당수가 개인의 성적에 맞추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화식, 2010; 배봉진,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대학 치기공과 재학생의 전공선택과 진로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진로결정의 하위요인들이 진로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본다. 또한 각 개인의 전공선택의 확신은 성별, 학년, 연령, 출신고교 계열, 출신지역, 군복무 유무, 재수경험, 주·야, 진로결정여부 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진로결정 요인들을 여러 변인(성별, 학년, 연령, 출신고교 계열, 출신지역, 군복무유무, 재수경험, 주·야, 진로결정 여부)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치기공과 재학생 진로문제 및 상담 프로그램에 적용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D-대학 치기공과에 재학 중인 1, 2, 3학년 학생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11년 5월 15일에서 2011년 6월 30일까지 치기공과 재학생 685명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 685부의 설문 중 590부(86.13%)를 수거하여 무응답 항목이 많거나 문항에 결측 값이 있는 것을 제외한 490부(65.69%)를 분석하여 사용하였다(Table 1).

Table 1. Research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relevant feature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sex	male	287(58.57)
	female	203(41.43)
grade	grade 1	180(36.73)
	grade 2	144(29.39)
	grade 3	166(33.88)
age	under 19	151(30.82)
	20~23	229(46.73)
	over 24	110(22.45)
highschool classification	general field	378(77.14)
	specific field	94(19.18)
	etc	18(3.67)
city of birth	daegu	138(28.16)
	kyung buk	103(21.02)
	busan, kyungnam	138(28.16)
	seoul, kyunggi	49(10.00)
	etc	62(12.65)
military service	served	209(42.65)
	not served	281(57.35)
studying one more year to enter college	yes	53(10.82)
	no	437(89.18)
classification of course time	day time	376(76.73)
	night time	114(23.27)
career decision	decided	334(68.16)
	not decided	156(31.84)
	total	490(100.00)

## 2. 연구 도구

### 1) 전공선택 확신검사

전공에 관련하여 진로결정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는 Herren의 진로결정척도의 Part B 전공선택 확신검사(ACDM-Major)로서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고향자(1992)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14개 문항으로 만들었다.

각 문항의 채점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다'는 4점, '아주 그렇다'는 5점으로 하였으며, 문항 2, 4, 7, 13, 14번은 역 채점하였다.

전공선택 확신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전공에 대한 확신과 만족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전공 분야에 대한 확신과 흥미가 낮음을 의미한다.

전공선택 확신검사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문항 2, 7번은 다른 문항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 제외하였다.

전공선택 확신수준의 14개 문항을 직각 회전 방식으로 요인분석은 아이겐 값(eigen value)이 1.0인 경우를 3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총 누적변량은 54.84%로 각 요인에 대한 설명력은 요인1 19.80%, 요인2 19.19%, 요인3이 15.84%였다. 각 요인의 명명은 <Table 2>와 같이 '전공선택', '전공 관심', '전공자신감'으로 하여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의 공통적인 의미를 내포하도록 하였다. 전공선택 확신검사에 대한 전체문항 신뢰도(Cronbach  $\alpha$ )는 0.860802로 나타났다.

2) 진로결정 척도검사

진로결정 척도(CDS:Career Decision Scale)는 Osipow, Carney, Winer, Yanico, Koshir가 만든 것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변안 한 것을 허자영(1996)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전체 설문문항은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문항 1, 2번은 역 채점하였으며, 진로결정 척도 검사의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가 미결정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결정이나 선택에 대한 확신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진로결정 척도에 대한 전체 문항 신뢰도는 0.886691로

Table 2. Examining the confidence on selecting major and the following scale of career decision

scale	following elements	number of question	NQ	cronbach $\alpha$	
the elements for having confidence in selecting major	major selection	1, 4, 12, 14	4	0.818353	0.860802
	major interest	3, 5, 6, 8	4	0.578679	
	major confidence	9, 10, 11, 13	4	0.739023	
the elements of career decision	career decision pressure	7, 8, 9, 10, 11, 12, 13, 14	8	0.856339	0.886691
	difficulty of selecting job	3, 4, 5, 6	4	0.646298	
	difficulty of career decision	15, 16, 17, 18	4	0.696984	
	satisfaction of career decision	1, 2	2	0.877581	
total			30		

나타났다. 한편 선행연구들의 진로결정 신뢰도는 0.82에서 0.90사이로 보고되고 있어(이재도, 2009) 본 연구의 신뢰도와 일치하고 있다.

진로결정 문항들의 직각 회전요인 방식으로 요인을 분석한 결과 (Table 2)와 같이 4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총 누적변량은 57.11%로서 각 요인에 대한 설명력은 요인 1 21.18%, 요인2 12.60%, 요인3 11.96%, 요인4가 11.38%로 나타났다. 각 요인을 ‘진로선택의 부담감’, ‘직업선택의 어려움’, ‘진로결정의 어려움’, ‘진로결정 만족감’ 으로 명명하여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의 의미를 내포하도록 하였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자기보고식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전공선택 확신검사 14문항, 진로결정 척도검사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계 프로그램 Window SAS 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항목에 따른 유의성 검정은 유의수준은  $p < 0.05$ 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전공선택 확신수준, 진로결정 척도의 내적일치도(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신뢰도 분석(Cronbach  $\alpha$ )을 하였으며, 하위요인 분석에는 직각 회전방식의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전공선택, 진로결정의 차이 검정을 위해서는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사용하였다.

III. 결 과

1. 전공선택 확신 수준

전공선택 확신 수준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요소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전공선택 확신 수준 전체와 3개의 하위요인 ‘전공선택’, ‘전공관심’, ‘전공자신감’ 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Table 3. The overall questions of testing confidence on major selection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m	sd	F or t	p
sex	male	287(58.57)	3.57	0.52	5.25	〈.0001***
	female	203(41.43)	3.31	0.58		
military service	served	209(42.65)	3.57	0.50	3.86	0.0001**
	not served	281(57.35)	3.38	0.58		
studying one more year to enter college	yes	53(10.82)	3.59	0.42	2.34	0.0216**
	no	437(89.18)	3.44	0.57		
career decision	decided	334(68.16)	3.62	0.50	10.45	〈.0001***
	not decided	156(31.84)	3.11	0.52		
classification of course Time	day time	376(76.73)	3.44	0.56	-1.49	0.1369
	night time	114(23.27)	3.53	0.54		
grade	grade 1	180(36.73)	3.53	0.58	5.81	0.0032**
	grade 2	144(29.39)	3.51	0.46		
	grade 3	166(33.88)	3.34	0.59		
age	under 19	151(30.82)	3.44	0.57	1.56	0.2118
	20~23	229(46.73)	3.43	0.56		
	over 24	110(22.45)	3.54	0.51		
highschool classification	general field	378(77.14)	3.45	0.56	0.68	0.5070
	specific field	94(19.18)	3.52	0.58		
	etc	18(3.67)	3.40	0.39		
city of birth	daegu	138(28.16)	3.45	0.59	1.38	0.2407
	kyungbuk	103(21.02)	3.42	0.52		
	busan	138(28.16)	3.45	0.53		
	seoul	49(10.00)	3.63	0.55		
	etc	62(12.65)	3.42	0.59		

전공선택의 전체 문항에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주·야, 연령, 출신 고등학교계열, 출신지역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 군복무 여부, 재수 경험, 진로결정여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남학생(3.57)이 여학생(3.31),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3.11)보다 결정한 학생(3.62)이 전공선택에 대한 확신과 만족감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군복무경험이 있는 학생, 재수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 야간반 학생이 전공선택에 대한 확신과 만족감이 높게 나타났다.

1) 전공선택 요인

전공선택 요인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Table 4>와 같이 재수경험, 연령, 출신 고등학교계열, 출신지역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 군복무여부, 진로결정여부, 주·야구분, 학년에 따라 선택 선택 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3.58)이 여학생(3.25)보다 전공선택에 대한 확신과 만족감이 높게 나타났고, 군복무경험(3.55)이 있는 학생이 군 경험이 없는 학생(3.36)보다 전공선택에 있어 확신과 만족감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4. Examining the difference in selecting major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m	sd	F or t	p
sex	male	287(58.57)	3.58	0.72	4.80	〈.0001***
	female	203(41.43)	3.25	0.80		
military service	served	209(42.65)	3.55	0.72	2.66	0.0081**
	not served	281(57.35)	3.36	0.80		
studying one more year to enter college	yes	53(10.82)	3.60	0.63	1.64	0.1013
	no	437(89.18)	3.42	0.78		
career decision	decided	334(68.16)	3.66	0.68	10.02	〈.0001***
	not decided	156(31.84)	2.98	0.74		
classification of course Time	day time	376(76.73)	3.39	0.77	-2.45	0.0145*
	night time	114(23.27)	3.59	0.73		
grade	grade 1	180(36.73)	3.57	0.79	5.31	0.0052**
	grade 2	144(29.39)	3.45	0.68		
	grade 3	166(33.88)	3.30	0.80		
age	under 19	151(30.82)	3.46	0.80	1.11	0.3311
	20~23	229(46.73)	3.39	0.76		
	over 24	110(22.45)	3.52	0.74		
highschool classification	general field	378(77.14)	3.42	0.77	0.70	0.4978
	specific field	94(19.18)	3.51	0.78		
	etc	18(3.67)	3.53	0.59		
city of birth	daegu	138(28.16)	3.41	0.82	2.31	0.0573
	kyungbuk	103(21.02)	3.41	0.68		
	busan	138(28.16)	3.40	0.78		
	seoul	49(10.00)	3.76	0.65		
	etc	62(12.65)	3.41	0.81		

이런 현상은 군 휴학기간의 학업 공백기 그리고 나이에 대한 부담감 또한 휴학기간 중 사회생활의 경험 등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진로를 결정한 학생(3.66)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2.98)보다 높은 것은 치과기공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나 또한 치기공과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합하여 본인의 적성에 맞추어 학과를 선택한 사례로 여겨진다.

2) 전공관심도 요인

전공관심도 요인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Table 5〉와 같이 재수경험, 주·야 구분, 연령, 출신 고등학교 계열, 출신지역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 군복무여부,

진로결정여부, 학년에 따라 선택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3.56)이 여학생(3.41)보다, 진로결정을 한 학생(3.59)이 결정을 하지 않은 학생(3.31)보다 높게 반응한 것은 전공선택 요인 문항과 동일하게 반응하였다. 군 복무경험이 있는 학생이 군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전공관심도에 있어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학년이 낮을수록 전공관심도가 높고 학년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난 것은 입학 전 치기공과에 대한 사전 정보가 적었거나, 적성보다는 성적에 맞추어 지원하다 보니 전공 및 학습내용이 본인의 생각과 달라 전공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5. Examining the difference in major interest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m	sd	F or t	p
sex	male	287(58.57)	3.56	0.55	3.17	0.0016**
	female	203(41.43)	3.41	0.52		
military service	served	209(42.65)	3.58	0.54	2.79	0.0055**
	not served	281(57.35)	3.44	0.53		
studying one more year to enter college	yes	53(10.82)	3.57	0.48	0.97	0.3334
	no	437(89.18)	3.49	0.55		
career decision	decided	334(68.16)	3.59	0.53	5.42	〈.0001***
	not decided	156(31.84)	3.31	0.52		
classification of course Time	day time	376(76.73)	3.49	0.56	-0.44	0.6601
	night time	114(23.27)	3.52	0.49		
grade	grade 1	180(36.73)	3.56	0.50	4.56	0.0109*
	grade 2	144(29.39)	3.54	0.60		
	grade 3	166(33.88)	3.40	0.53		
age	under 19	151(30.82)	3.54	0.52	1.50	0.2245
	20~23	229(46.73)	3.45	0.58		
	over 24	110(22.45)	3.53	0.49		
highschool classification	general field	378(77.14)	3.49	0.55	2.00	0.1364
	specific field	94(19.18)	3.57	0.53		
	etc	18(3.67)	3.31	0.44		
city of birth	daegu	138(28.16)	3.52	0.56	0.46	0.7681
	kyungbuk	103(21.02)	3.49	0.52		
	busan	138(28.16)	3.51	0.56		
	seoul	49(10.00)	3.52	0.57		
	etc	62(12.65)	3.42	0.51		

3) 전공자신감 요인

전공자신감 요인의 차이는 <Table 6>과 같이 주·야 구분, 학교계열, 출신지역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 군복무여부, 재수경험유무, 진로결정여부, 학년,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성별에 있어서는 남학생(3.56)이 여학생(3.27)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군복무자(3.58)가 군미복무자

(3.34)보다, 진로결정자(3.62)가 진로미결정자(3.05)보다, 재수경험이 있는 학생(3.61)은 재수를 하지 않는 학생(3.42)보다 전공에 대한 자신감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전공에 대한 자신감이 높게 나타난 항목들은 대체로 입학 전 치과기공사란 직업에 대한 사전 정보가 많거나, 치기공과에 대한 정보들을 주위 사람들로 부터 많은 조언을 받아 선택하였으므로 여겨진다.

Table 6. Examining the difference in having confidence towards major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m	sd	F or t	p
sex	male	287(58.57)	3.56	0.59	4.90	〈.0001***
	female	203(41.43)	3.27	0.70		
military service	served	209(42.65)	3.58	0.59	4.29	〈.0001***
	not served	281(57.35)	3.34	0.68		
studying one more year to enter college	yes	53(10.82)	3.61	0.46	2.71	0.0081**
	no	437(89.18)	3.42	0.67		
career decision	decided	334(68.16)	3.62	0.59	9.89	〈.0001***
	not decided	156(31.84)	3.05	0.62		
classification of course Time	day time	376(76.73)	3.43	0.65	-0.56	0.5739
	night time	114(23.27)	3.47	0.65		
grade	grade 1	180(36.73)	3.46	0.73	4.20	0.0155*
	grade 2	144(29.39)	3.54	0.52		
	grade 3	166(33.88)	3.33	0.66		
age	under 19	151(30.82)	3.33	0.68	4.61	0.0104*
	20~23	229(46.73)	3.45	0.65		
	over 24	110(22.45)	3.58	0.61		
highschool classification	general field	378(77.14)	3.44	0.64	0.22	0.8045
	specific field	94(19.18)	3.47	0.73		
	etc	18(3.67)	3.36	0.51		
city of birth	daegu	138(28.16)	3.44	0.66	1.26	0.2831
	kyungbuk	103(21.02)	3.38	0.65		
	busan	138(28.16)	3.42	0.64		
	seoul	49(10.00)	3.63	0.63		
	etc	62(12.65)	3.45	0.68		

## 2. 진로결정 수준

진로결정 수준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요소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진로결정수준 전체와 4개의 하위요인인 ‘진로선택부담감’, ‘직업선택어려움’, ‘진로결정어려움’, ‘진로결정만족감’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진로결정의 전체문항에서 차이를 분석한 결과 <Table

7>과 같이 재수 경험, 출신고교 계열, 학년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진로결정 여부, 성별, 군복무 여부, 출신지역, 주·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진로를 결정한 학생(2.64)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3.12), 남학생(2.71)이 여학생(2.91)보다 진로선택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나타났다.



1) 진로선택의 부담감 요인

진로선택의 부담감 요인에서 차이를 분석한 결과 <Table 8>와 같이 재수 경험, 출신고교 계열, 학년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 군복무 여부, 진로결정 여부, 주·야 구분, 연령, 출신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남학생(2.56)에 비해 여학생(2.83), 진로결정을 한 학생(2.50)보

다 진로결정을 하지 못한 학생(3.04), 군 복무경험이 있는 학생(2.55)이 군 경험이 없는 학생(2.77)보다 진로선택의 부담감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출신지역에 따라 경북(2.84), 경남(2.70), 대구(2.65), 서울·경기(2.38)순으로 나타나 광역시 및 수도권 출신보다 지방출신의 학생들이 진로선택에 있어 부담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7. The overall questions for career decision and measuring its leve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m	sd	F or t	p
sex	male	287(58.57)	2.71	0.52	-3.84	0.0001***
	female	203(41.43)	2.91	0.58		
military service	served	209(42.65)	2.71	0.50	-2.81	0.0052**
	not served	281(57.35)	2.85	0.58		
studying one more year to enter college	yes	53(10.82)	2.72	0.47	-1.09	0.2782
	no	437(89.18)	2.80	0.56		
career decision	decided	334(68.16)	2.64	0.53	-10.58	<.0001***
	not decided	156(31.84)	3.12	0.43		
classification of course Time	day time	376(76.73)	2.83	0.52	2.22	0.0276*
	night time	114(23.27)	2.68	0.64		
grade	grade 1	180(36.73)	2.83	0.62	1.19	0.3046
	grade 2	144(29.39)	2.74	0.44		
	grade 3	166(33.88)	2.80	0.56		
age	under 19	151(30.82)	2.89	0.59	4.02	0.0185*
	20~23	229(46.73)	2.78	0.51		
	over 24	110(22.45)	2.69	0.58		
highschool classification	general field	378(77.14)	2.78	0.54	0.39	0.6802
	specific field	94(19.18)	2.84	0.60		
	etc	18(3.67)	2.78	0.55		
city of birth	daegu	138(28.16)	2.79	0.59	3.63	0.0063**
	kyungbuk	103(21.02)	2.94	0.54		
	busan	138(28.16)	2.79	0.51		
	seoul	49(10.00)	2.59	0.45		
	etc	62(12.65)	2.74	0.59		

Table 8. Examining the difference in having pressure towards career selection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m	sd	F or t	p
sex	male	287(58.57)	2.56	0.64	-4.15	〈.0001***
	female	203(41.43)	2.83	0.73		
military service	served	209(42.65)	2.55	0.64	-3.48	0.0005***
	not served	281(57.35)	2.77	0.71		
studying one more year to enter college	yes	53(10.82)	2.51	0.67	-1.79	0.0739
	no	437(89.18)	2.69	0.69		
career decision	decided	334(68.16)	2.50	0.67	-9.12	〈.0001***
	not decided	156(31.84)	3.04	0.58		
classification of course Time	day time	376(76.73)	2.72	0.66	2.67	0.0079**
	night time	114(23.27)	2.52	0.76		
grade	grade 1	180(36.73)	2.71	0.75	0.08	0.4522
	grade 2	144(29.39)	2.61	0.58		
	grade 3	166(33.88)	2.69	0.71		
age	under 19	151(30.82)	2.79	0.71	3.96	0.0196*
	20~23	229(46.73)	2.65	0.64		
	over 24	110(22.45)	2.56	0.73		
highschool classification	general field	378(77.14)	2.67	0.67	0.17	0.8459
	specific field	94(19.18)	2.69	0.78		
	etc	18(3.67)	2.59	0.57		
city of birth	daegu	138(28.16)	2.65	0.73	4.03	0.0032**
	kyungbuk	103(21.02)	2.84	0.67		
	busan	138(28.16)	2.70	0.67		
	seoul	49(10.00)	2.38	0.59		
	etc	62(12.65)	2.64	0.68		

2) 직업선택의 어려움 요인

진로선택의 어려움 요인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Table 9>와 같이 성별, 군복무 여부, 주·야 구분, 연령, 재수 경험, 출신고교 계열, 학년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진로결정 여부, 출신지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진로결정을 한 학생(2.51)보다 진로결정을 하지 못한 학생(2.84)이 직업선택의 부담감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출신지역에 있어서 경북(2.74), 대구광역시

(2.67), 경남·부산광역시(2.59), 기타(2.50), 서울104경기(2.43)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및 수도권 출신보다 지방출신의 학생들이 진로선택에 있어 부담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도 진로선택의 부담감 요인과 같이 지방출신의 학생들이 수도권 및 광역시의 학생들 보다 치과공사의 직업에 관한 정보나 치기공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학을 선택한 결과로 보여 진다.

Table 9. Examining the difference in having difficulties to job selection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m	sd	F or t	p
sex	male	287(58.57)	2.54	0.62	-1.47	0.1410
	female	203(41.43)	2.67	0.63		
military service	served	209(42.65)	2.61	0.63	-0.01	0.9893
	not served	281(57.35)	2.62	0.62		
studying one more year to enter college	yes	53(10.82)	2.62	0.63	0.01	0.9893
	no	437(89.18)	2.62	0.63		
career decision	decided	334(68.16)	2.51	0.62	-5.52	〈.0001***
	not decided	156(31.84)	2.84	0.58		
classification of course Time	day time	376(76.73)	2.64	0.63	1.38	0.1675
	night time	114(23.27)	2.55	0.62		
grade	grade 1	180(36.73)	2.59	0.65	0.26	0.7677
	grade 2	144(29.39)	2.64	0.63		
	grade 3	166(33.88)	2.63	0.60		
age	under 19	151(30.82)	2.63	0.64	0.48	0.6218
	20~23	229(46.73)	2.63	0.64		
	over 24	110(22.45)	2.57	0.58		
highschool classification	general field	378(77.14)	2.61	0.64	0.24	0.7838
	specific field	94(19.18)	2.65	0.60		
	etc	18(3.67)	2.57	0.46		
city of birth	daegu	138(28.16)	2.67	0.66	2.98	0.0190*
	kyungbuk	103(21.02)	2.74	0.64		
	busan	138(28.16)	2.59	0.61		
	seoul	49(10.00)	2.43	0.42		
	etc	62(12.65)	2.50	0.62		

3) 진로결정의 어려움 요인

진로결정의 어려움 요인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Table 10>과 같이 성별, 군복무 여부, 주·야 구분, 재수 경험, 출신고교 계열, 출신지역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진로결정 여부, 학년,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진로결정을 한 학생(3.06)보다 진로결정을 하지 못한 학생(3.43), 2학년(3.02)학생이나 3학년(3.12)학생보다 1학년(3.35)학생이 진로결정의 부담감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으며, 연령별로도 19세 미만(3.32)의 학생이 20세

~23세(3.12), 24세 이상(3.08)의 학생보다 진로결정을 할 때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학년 일수록 진로결정의 부담감이 많은 이유 중 하나로 치과기공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어려워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반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공선택과 진로결정에 있어 충분한 정보와 사회 및 군 경험을 바탕으로 선택하였기에 치과기공사라는 직업이 내 미래를 보장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음으로 여겨진다.

Table 10. Examining the difference in having difficulties to career decision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m	sd	F or t	p
sex	male	287(58.57)	3.15	0.66	-1.01	0.3142
	female	203(41.43)	3.21	0.70		
military service	served	209(42.65)	3.12	0.64	-1.43	0.1522
	not served	281(57.35)	3.21	0.70		
studying one more year to enter college	yes	53(10.82)	3.24	0.56	0.70	0.4814
	no	437(89.18)	3.17	0.69		
career decision	decided	334(68.16)	3.06	0.67	-5.83	〈.0001***
	not decided	156(31.84)	3.43	0.63		
classification of course Time	day time	376(76.73)	3.18	0.65	0.23	0.8197
	night time	114(23.27)	3.16	0.77		
grade	grade 1	180(36.73)	3.35	0.73	10.61	〈.0001***
	grade 2	144(29.39)	3.02	0.61		
	grade 3	166(33.88)	3.12	0.64		
age	under 19	151(30.82)	3.32	0.72	5.55	0.0041**
	20~23	229(46.73)	3.12	0.62		
	over 24	110(22.45)	3.08	0.69		
highschool classification	general field	378(77.14)	3.14	0.66	2.79	0.0627
	specific field	94(19.18)	3.26	0.68		
	etc	18(3.67)	3.44	0.94		
city of birth	daegu	138(28.16)	3.16	0.71	1.32	0.2632
	kyungbuk	103(21.02)	3.30	0.64		
	busan	138(28.16)	3.13	0.62		
	seoul	49(10.00)	3.18	0.69		
	etc	62(12.65)	3.09	0.75		

4) 진로결정의 만족감 요인

진로결정의 만족감 요인(1, 2번 문항)은 역 채점하였으며, 진로결정 척도검사의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가 미결정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결정이나 선택에 대한 확신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진로결정의 만족감 요인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Table 11〉와 같이 재수경험 유무, 학년, 연령, 출신고교 계열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 군복무 유무, 진로결정의 여부, 주?야 구분, 출신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진로결정을 한 학생(2.62)이 진로결정을 하지 못한 학생(3.40), 남학생(2.71)이 여학생(3.08), 야간학

생(2.63)이 주간학생(2.94), 군복무 학생(2.76)이 미 복부 학생(2.94)보다 진로결정에 있어 만족감을 보였다. 또한 출신지역은 경상북도(2.97), 기타(2.94), 경남·부산광역시(2.91), 대구광역시(2.83), 서울?경기도(2.54)순으로 나타났다.

진로선택의 만족감조사에서도 역시 진로선택의 어려움이나 부담감이 있는 학생은 만족감이 떨어지나 진로 및 직업선택의 부담감이나 어려움이 적은 학생은 진로결정에 있어 만족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학과 선택이나 진로결정에 앞서 학과에 대한 많은 정보습득과 분석 그리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의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Table 11. Examining the difference in the satisfaction of career decision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m	sd	F or t	p
sex	male	287(58.57)	2.71	0.82	-4.88	〈.0001***
	female	203(41.43)	3.08	0.86		
military service	served	209(42.65)	2.76	0.79	-2.30	0.0222*
	not served	281(57.35)	2.94	0.89		
studying one more year to enter college	yes	53(10.82)	2.68	0.65	-1.68	0.0928
	no	437(89.18)	2.89	0.87		
career decision	decided	334(68.16)	2.62	0.77	-10.42	〈.0001***
	not decided	156(31.84)	3.40	0.78		
classification of course Time	day time	376(76.73)	2.94	0.85	3.37	0.0008**
	night time	114(23.27)	2.63	0.83		
grade	grade 1	180(36.73)	2.79	0.94	1.25	0.2862
	grade 2	144(29.39)	2.87	0.77		
	grade 3	166(33.88)	2.94	0.82		
age	under 19	151(30.82)	2.90	0.93	2.28	0.1038
	20~23	229(46.73)	2.92	0.81		
	over 24	110(22.45)	2.71	0.81		
highschool classification	general field	378(77.14)	2.86	0.85	1.03	0.3594
	specific field	94(19.18)	2.94	0.89		
	etc	18(3.67)	2.64	0.72		
city of birth	daegu	138(28.16)	2.83	0.86	2.44	0.0458*
	kyungbuk	103(21.02)	2.97	0.87		
	busan	138(28.16)	2.91	0.87		
	seoul	49(10.00)	2.54	0.75		
	etc	62(12.65)	2.94	0.82		

사료된다. 또한 진로결정에 있어 만족감을 가진 학생들은 뚜렷한 직업세계 진로를 결정하여 편안함을 느끼며 선택한 전공에 확신을 갖고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를 알고 있음으로 학업 성취도도 높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치기공과 재학생의 전공선택의 요인과 진로결정요인들을 파악하여 진로향상 프로그램운영에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D-대학 치기공과에 재학 중인 학생 685

명에게 설문을 의뢰하여 문항에 결측 값이 있는 것을 제외한 490부를 분석대상자로 하였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전공선택 확신검사 설문지 14문항, 진로결정 척도검사 설문지 18문항으로 구성하고 5점 척도로 채점하였다.

전공선택의 확신검사 설문지는 3개 요인으로 '전공선택', '전공관심', '전공자신감'으로 분류하고, 진로결정 설문지는 4개 요인으로 '진로선택의 부담감', '직업선택의 어려움', '진로결정의 어려움', '진로결정 만족감'으로 구분하여 통계 프로그램 Window SAS 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전공선택 확신수준, 진로결정 척도의 내적일치도(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신뢰도분석을 하였으며, 하위요인 분석에는 직각 회전방식의 요인 분석(factor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전공선택, 진로결정의 차이 검정을 위해서는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공선택 확신 수준에 대한 분석결과는 성별( $p < .0001$ ), 진로결정여부( $p < .0001$ ), 군복무여부( $p < .001$ ), 학년( $p < .01$ ), 재수경험( $p < .05$ )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주?야구분(주: 3.44, 야: 3.53), 연령 영역(19세 미만: 3.44, 20~23세: 3.43, 24세 이상: 3.54) 출신고교 계열(일반계: 3.45, 전문계: 3.52, 기타: 3.40)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진로결정 수준에 대한 분석결과는 성별( $p < .0001$ ), 진로결정 여부( $p < .0001$ ), 군복무 여부( $p < .001$ ), 출신지역( $p < .01$ ), 주?야구분( $p < .05$ ), 연령( $p < .05$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재수경험(유: 2.72 무: 2.80), 학년(1학년: 2.83, 2학년: 2.74, 3학년: 2.80) 출신고교 계열(일반계: 2.78, 전문계: 2.84, 기타: 2.78)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현재 치기공과 학생들은 여학생이 전공선택의 확신수준이나 진로결정에 있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충분한 지도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진로결정을 한 학생은 높은 만족감을 보였으나 진로결정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전공선택에 대한 확신이 설 때 까지 충분한 지도가 필요하며, 치과기공사의 직업선택에 있어서 자부심을 갖도록 심층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고원경. 일반계 고교생 진로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고향자.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고홍월.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 성숙수준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김선중.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배봉진. 전문대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치과기공학회지, 32(4), 387-401, 2010.

이재도. 대학생의 진로결정 분석. 한국 전문대학 교육연구학회논문집, 10(1), 15-26, 2009.

이재창. 대학생의 진로탐색을 통한 진로결정. 홍익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19, 1987.

이원창. 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의사결정유형과 대학진학 의사결정 유형과의 관계.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이화식. 대학생의 진로장벽에 관한 연구. 대한치과기공학회지, 32(3), 157-169, 2010.

조순형.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한겨레. 희망직업→대학·학과→고교식 진로선택을. 6, 13, 2010.

한국경제TV. 대학생 졸업 유예 잇따라. 1, 27, 2010.

허자영. 대학생 진로결정유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